

백령도에 활짝피는孝의 연꽃 연화정사 효행수련원 건립불사 한창

남북통일 발원·인성교육 도량으로 특화



◇15일 연화정사건립기원 천일관음기도에 참여한 스님과 불자들.

북녘 땅, 동금포 타령의 무대 장산곶이 눈앞에 밟힐 듯 하다. 장산곶 앞,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효녀 심청이 물에 뛰어 들었다는 인당수가 넘실댄다. 하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치열한 현실이 감성적인 기운을 싸늘하게 건어낸다.

남한 서해 최북단 인천에서 191.4km, 뱃길로 324km, 북한의 장연군과 직선거리 10km. 남한에서 8번째로 큰 섬, 성당 2곳, 교회 13개, 전체 인구 중 90% 가량이 개신교 신자인 곳. 군 법당 홀몸사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주지 지명)가 건립된다.

백령도에 사찰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은 5년여 전. 현 주지 지명스님이 인천 농인사 주지 소임을 맡던 중 백령도를 돌면서 시작되었다. 심청전 설화가 나오는 사지(史地)가 있고, 절골이라는 지명도 있었으나, 사지가 수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해수관음상이 봉안될 부지. 관음상 정면에는 인당수가 펼쳐져있고 우측에는 심청각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 184명 등 전체 14,420명. 여기에 법당과 수련원, 연지(蓮池) 등을 조성한다. 효행수련원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남 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맞고 있는 청소년에

봉바위 등 심청이의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곳. 내년 초파일 즈음 10m 가량의 해수관음상이 모셔지고 수련원이 개실되면 효행의 섬.

불교의 불모지 백령도에 불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길 것이다.

지명 스님은 "남북간 협력과 화해의 시대에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가 건립되면 분단 민족이 하나됨을 절감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뜻 있는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연화정사 불사 소중한 인연 맺으세요

백령도에 연화정사 세계를... 남북통일의 길을 여는 백령도 효행수련원 연화정사 건립불사에 동참하십시오.

선근공역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동참금: 30만원)

대웅전

상설관 시주대들보 및 용두, 중설관 시주(기둥, 주춧돌, 설판 시주(사카래, 기와 등

동참안내

불사에 동참하실 불자께서는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고 원만한 불사 성취를 위하여 월 약정액을 정하여 자돈이체로 입금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불사 동참금은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수관음상 건립 불사

서해 최북단 섬, 장산곶이 바라다 보이고 만고효녀 심청이의 흔적이 살아있는 백령도! 이곳에 해수관음상을 모시려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남북통일의 길을 열어 민족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대발원에 수회동참하시어 무량한 복의 인연을 증장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208-25-0012-882 연화도량
제일은행 100-20-256204 고대환
서울은행 56807-1123608 고대환
우체국 300682-02-006258 고대환
농협 130024-52-168152 고대환
지포번호 7668047 전국은행, 농협 및 우체국 수납창구
문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 241-1번지
백령도 효행수련원 연화정사 TEL: 032-836-1441
서울사무실: 02-549-8592 인천사무실: 032-885-9711, 773-9711

삼천불 효행지장전

중생구제의 대서원을 세우신 대한본존 지장보살님 삼천불을 모시려합니다. 1불조성 350,000원 매월 10,000원 35개월

천일관음기도봉행

옛 가람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백령도에 효행을 근원으로 하는 연화정사세계를 꽃피우겠다는 대서원을 세우고 천일 관음기도를 봉행합니다. 수회 동참하시어

대지 총 14,420평...법당·수련원·연지 조성

내년 초파일 해수관음상 봉안-2005년 회향

1천일기도 입재, 개신교측 선 거세계 반대

지명 스님은 효녀 심청의 이야기에 나오는 효 사상과 남과 북이 함께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착안. 효행수련원을 세우기로 발심을 했던 것이다.

스님은 연화정사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대전실에서, '2002 세계 고승대덕 발우 譯서화 특별전'을 준비했다. 특별전 준비의 표면적인 이유는 연화정사 재정확충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신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사상과 의미가 깃들여있는 발우를 통하여 수행자의 모습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도량 건립을 위해 주지스님의 도반인 상봉 스님이 부산에 있는 사찰 주지직을 포기하면서까지 15일 천일관음기도에 들어갔다. 회향일은 2005년 8월 10일. 현재 확보되어 있는 연화정사 부지는 대

계 우리 효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승시키기 위해 준비된다.

또한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일깨워 발우공양 등의 불교적 수련을 통해 자비와 계율 정신으로 남북통일의 주역으로 민족적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인격체로 육성을 위한 상설 수련원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계획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와 개신교의 반대 움직임이다. 개신교는 백령도를 최초의 복음의 땅이라 주장하며 '사찰건립절대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걸여놓고 있다. 스님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적극적인 동화정책으로 사찰건립반대의 움직임을 희석화시킬 계획이다.

사찰 천연비행장(천연기념물 391호), 풍동해안(천연기념물 392호), 갈림암포화 현무암(천연기념물 393호) 등 천혜의 자연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곳. 인당수와 연지, 연

“불자들 시명감 갖고 불사 동참을”

연화정사 건립 주도 지명스님



주위 싸늘한 시선 가장 힘들었어요

을 주도하고 있는 지명 스님은 무엇보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편하고 쉬운 일도 많은데 편히 어렵고 힘든 일을 벌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이전의 절망이 끊어진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고 한다. "상구보리 회향중생의 참 의미를 생각했

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심청각과 연화정사를 중심으로 한 효 사상과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특히 연화정사를 보고 싶어하는 불교를 발견할 수 있는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족한 능력이지만 제가 나서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불자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보태진다면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것입니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등입 재조목어 (특어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중 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준곡동 180-1

전화: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www.chanduk.com e-mail: chanduk21@hanmail.net